"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1043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5년 9월 4일 목요일(음력 7월 13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전공의 돌아왔지만… 의료 정상화 '글쎄'

의정 갈등 1년 6개월 만에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
충원율 제주대학병원 61%·한라병원 57% 그쳐
환자·가족들 "돌아와 다행… 다시는 이런 일 없길"

"나이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 뉴스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환자를 생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주지역 수련병원에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맴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과 더불어 전공의 복귀 이후 현장 혼선도 불가피해 당장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란 아쉬움도 나온다.

3일 오전 방문한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흰 가운을 입고 '의과대학' 학생증을 매단 전공의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지난 1일부터 병원으로 돌아왔다.

제주대병원은 예약제로 운영돼 내부가 크게 붐비는 모습은 아니었으나, 전공의 복귀 소식을 들은 환자들은 안도의 마음을 표했다.

심장내과 진료를 기다리던 A씨는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진료나 수술을 받으러 육지로 가기 일쑤였는데 제주에서 병원을 다닐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했다.

딸의 출산을 앞두고 산부인과를 찾은 송모(60대)씨는 "딸이 임신 중에 의정 갈등이 벌어져 노심초사했다. 큰 병원이 안전할 것 같아 일부러 찾아왔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잘 소통해서 전공의들이 앞으로 자리를 지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3일 전공의들이 복귀한 제주대학병원의 모든 진료과목 예약이 마감됐다(사진 왼쪽). 지난 1일자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오른쪽). 양유리기자

1년 반 만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현장 적응에 한창이다. 이날 만난 레지던트 2년 차 B씨는 "어제 복귀하자마자 수련에 돌입했지만 아직 적응 단계에 있다"며 "진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복귀 전공의 교육에 주력하는 한편, 그간 전공의 업무를 대체했던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조정에도 나섰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 예약이 크게 늘어나는 변화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병상·수술 건수 회복 등은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며 "현재는 전공의와 간호사 업무조정과 전공의 교육에 집중해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대병원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합격한 30명을 포함해 61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 정원은 100명으로 충원율은 61%다. 제주한라병원은 정원 21명 중 지원 합격자 2명을 포함해 12명이 근무 중이다. 충원율은 57%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관광객 시선 사로잡는 보롬왓 정원 3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보롬왓 정원에 형형색색의 꽃이 활짝 피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노지감귤 볼록총채벌레 피해 확산 우려… 3면 / 제주도민 '기후변화 불안도' 전국 평균 웃돌아… 5면

알 림

2025 JDC와 함께하는 @청소년캠프

한라일보는 JDC와 함께 올해 '청소년 캠프'를 총 4회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2차 참가자 모집

9월 13일 (토)오후 1시~4시

{3차 9월 20일(토) 4차 9월 27일(토)}

▶신청 기간: 9월 2일(화) ~ 12일(금)까지
▶접수 방법: QR코드 또는 접수 링크로 연결
https://forms.gle/h1vSm5VipbQS35n97
※선착순 접수인만큼 신청 후 확인 문자 요망

▶대 상: 도내 초등학생(3 ~ 6학년)
▶모집 인원: 각 20명내외(선착순 마감), 참가비 무료(간식 제공)
▶교육 내용: 제주를 보드게임으로 탐색하기!
1차시 제주 신화/ 2차시 제주 환경/ 3차시 제주 역사/ 4차시 제주어
▶문 의: 010-2077-1141

한라일보 • JDC

제주 출생아 30년 새 64% 줄었다

통계청 분석… 1995년 8747명→ 2024년 3156명

합계출산율 1.83명→ 0.83명

지난 30년간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6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 자료에 따르면 제주 출생아 수는 1995년 8747명에서 2024년 3156명으로 줄어 30년 사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감소율은 63.9%로, 전국 평균(-66.7%)보다 다소 낮았다.

제주 지역 합계출산율은 지난 1995년에는 1.83명으로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2024년 0.83명으로 떨어졌다. 전국 평균(0.75명)보다는 높았지만 중위권 수준에 머물렀으며 30년 사이 감소 폭은 -1.00명으로 광주(-1.13명), 경기(-1.0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또 혼인건수는 1995년 4471건에서 2024년 2744건으로 38.6% 줄어 전국 평균(-44.2%)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도, 10월 17일까지 신청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2차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노무제공 8개 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90%,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며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 및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흔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소범기자

2025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
2025 GLOBAL JEJU BUSINESS FORUM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으로 만드는 제주

2025. 09. 08(월) ~ 09(화) 메종글래드 제주 1F 컨벤션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최 제주상공회의소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제주메세나협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월 8일 (월)	~15:30	국내외, 도내 참가자 등록	
	15:30-17:50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리더스 원탁회의	
	18:00-19:30	환영만찬	
9월 9일 (화)	10:30-10:50	개회식	
	10:50-11:30	기조강연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	
	11:40-12:30	제주상공인 토론	
	12:30-14:00	오찬 및 간담	
	14:00-14:50	기술트랜드 김남형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FTA 중점업종 설명회
	15:00-15:50	제주청년기업인 이야기 원종만 (주)GC컴퍼니글로벌 대표이사	
	16:00-16:50	문화·예술 이야기 염동균 작가	
	제주경제인 교류의 밤		
	17:00-18:00	강연 : 제주이야기 구자철 제주SK유스 어드바이저	
	18:00-18:40	문화공연	
	18:40~	폐회식 및 만찬	